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 | 연 | 성 | 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18년 9월 5일 수요일 (음 7월 26일) 제2124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내 첫 관광전문단지 남원에 조성

전북도,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지정 승인

1903억 투자 2022년까지 워터파크 · 골프장 등 조성 체류형 관광단지 만들기로 지역 관광인프라 구축 동부권 관광활성화 등 기여

남원에 순수 민간자본이 투입돼 워터파크를 비롯해 가족호텔, 전통문화시설 등이 망라된 전문 관광단지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들어서게 된다.

전북도는 4일 전북도 1호 관광단지인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3일자로 승인하고 송하진 도지사와 이환주 남원시장, 사업시행자인 신한레저(주) 박남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는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31번지 일원 79만5,133㎡의 면적에 민간개발자인 신한레저(주)가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1,903억원을 투자하여 워터파크, 가족호텔, 골프장, 전통문화테마시설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2015년 5월 전북도와 남원시, 사업시행사인 신한레저(주)가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2016년 제6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7년 12월 전라북도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이뤄졌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와 관계기관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관광단지 사업시행사인 신한레저(주)는 2006년부터 남원시 대산면 일원에 레저산업 투자를 시작해 현재 18홀 규모의 드래곤 레이크 CC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조성예정인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는 종합 레저 문화시설로 2~30대는 물론 가족형 관광객을 고려한 워터파크, 가족호텔(110실), 전통문화테마시설 골프장(9홀) 등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단지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신한레저(주)는 관광단지 조성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남원의 전통 문화와 역사 등을 발굴 및 활용하여 체험과 홍보를 함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인 남원예촌, 소리명상관, 김병종 시립 미술관, 예술촌 등과 연계되는 남원 시내권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남원과 동부권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상시 고용 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레저(주)의 박남식 대표는 "남원 및 전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단지를 개발하여 남원과 전라북도, 신한레저(주)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원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환영하며, 현재 남원시에서 진행 중인 관광개발 사업등과 연계하여 남원시 관광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민간자본 1,903억원을 유치하여 부족한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동부권의 중요한 사업으로 전북 관광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신한레저(주)가 남원시에 1903억원을 들여 호텔, 골프장, 워터파크등 드래곤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승인된 가운데 4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도지사와 박남식 신한레저(주)대표, 이환주 남원시장 및 참석자들이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 최강의 싸움소들 '대격돌'

내일부터 5일간 완주소싸움대회… 150여두 출전

대표적 싸움소의 기량 대결의 장인 완주소싸움대회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다.

완주군은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완주전국민속소싸움대회가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화산면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다고 4일 밝혔다.

올해에도 기량이 우수한 전국의 싸움소 150여두가 출전해 백두급(771kg 이상), 한강급(671~770kg), 태백급(600~670kg) 조를 나누고, 조별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소를 가리게 된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지난 3~6월까지 경상도지역에서 진행된 각종 소싸움대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뽐낸 완주 싸움소가 많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둘지 기대되고 있다.

체급별 우승 물망에 오르는 소는 백두급에서는 웅비와 백두(진주, 김근호), 승범(진주, 박준범), 한강급 통일과 백머리(청도, 최진호), 태백급에서는 별이(대구, 한종희)다.

완주에서 출전하는 소중에서는 사자와 반햇소(완주, 김영만)와 꺽비(고산, 송기수), 꺽비 (화산, 김용범) 등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 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경제 위해 적폐청산 적당히? 어불성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4일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한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기무사의 쿠데타 모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등을 거론하며 "반칙과 특권, 권력 농단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경제의지를 훼손시켜 경제성장과 나라발전을 가로 막는다. 우리나라는 오래 지속된 분단과 독재로 인해 사회 곳곳에 적폐가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비리, 입찰비리, 방산비리, 갑질문화 등 민생·경제적폐, 생활적폐의 뿌리를 뽑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관 유착형 건설적폐의 심각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도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행동 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오늘 친환경 공동주택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친환경 공동주택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친환경 공동주택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5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미래 전북의 성장동력이 될 도내 대학생들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친환경 공동주택 보급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 자격은 도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입상자에 대한 시상내용은 전북개발공사 사장 표장과 시상금(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2명 각50만원 장려상3명 각30만원)이다.

/김영태 기자

첫마중길 둥지내몰림 현상 예방 '맞손'

전주시, 대로변 위치 8개 건물주 · 임차인 등과 상생협약 체결

전주시와 전주역 앞 첫마중길 주변 건물주, 임차인이 적정 임대료를 유지키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효과로 상권이 되살아나면서 임차인이 막대한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해 건물에서 내몰리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현상이 예방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4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첫마중길 대로변에 위치한 8개 건물주, 임차인, 첫 마중길 상생협의회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건물주-임차인-전주시 3자간 상생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관련사진 4면〉

전주역 주변은 시가 가로수길과 광장으로 된 첫마중길로 조성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과 정부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선정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우려가 높았던 지역이다.

첫마중길 주변 건물주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등 전주 역세권 경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임대료를 유지키로 하고 특히,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키로 약속했다.

이에 상가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 및 거리환경 조성 등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시는 공공인프라 조성과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첫마중길 주변 나머지 건물주를 대상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임차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참여를 독려하는 등 대규모 공공재원이 투입돼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권임대료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상권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역 첫마중길 권역은 첫마중길과 전주역 신축, 보건소 신축,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전주의 성장축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성장의 여파로 임대료가 급상승해 임차인들이 거리로 내몰린다면 그것은 좋은 성장, 옳은 성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누적강수량 326.6m… 전북도, 집중 폭우 대응태세 강화

전북도는 최근에 내린 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림에 따라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 결과, 석축 유실로 주택 처마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행강우로 인하여 누적강수량은 도내 평균 326.6m이며 최고로 비가 많은 지역은 장수로 477.0mm로써,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북도에서는 이번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우선, 붕괴 등의 재해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선행강우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도 재난관련부서와 시·군 공무원 등이 협업하여 산사태, 급경사지, 노후 축대, 절개지 등을 재차 점점토록 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7일에도 비 예보가 있음에 따라 호우로 인한 도민들의 인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